

# 군산대 캠퍼스 내 마한 무덤군 발굴

### 전북지역 가장 이른 마한 분묘 유적으로 이목 집중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미룡동 고분군이 마한의 대규모 무덤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정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군산대학교 내 미룡동 고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굴조사를 다음 주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대학교 내 음악관 서쪽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한 마한의 무덤유적으로 2001년 지표조사에서 처음 학계에 보고됐으며, 2013년 1기의 말무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발굴조사를 통해 도랑을 두르고 그 내부에 8기의 개별 무덤이 배치된 독특한 형태의 마한 분구묘로 밝혀져 주목받았다. 또한 무덤 내부에서 기둥에 고정되지 않은 특이한 형태의 토기들이 출토됨에 따

라 전북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마한의 분묘유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과 군산시의 지원에 의해 미룡동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문화재 지정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현재 산줄기의 정상부에 10여기의 분구묘와 그 앞쪽에 대규모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기의 무덤에 대한 내부조사를 통해 자연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은 뒤 그 위에 옹관묘와 토광묘를 안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추정할바 마한의 분구묘가 대략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룡동 고분군 옹관묘.



미룡동 고분군 토광묘.

군산은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학계에 보고된 패총이 130여 개소에 달하며,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말무덤도 17개소에서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졸골 소금의 생산과 유통으로 융성했던 군산의 발

전상과 함께 군산이 마한의 거점지역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관장 박정근은 “근대 이전 군산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무덤과 패총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향후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 ‘소녀시대 태더서’ 빅데이터로 탄생? ‘박스오피스 경제학’ 출간

대중문화는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최근 경제의 화두는 빅데이터다.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돌 그룹에도 빅데이터가 적용된다. 경제학자 김윤지 씨는 ‘박스오피스 경제학’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이미지 분석으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귀띔한다.



그들 ‘소녀시대’가 대표적이다. 소녀시대의 보컬 유닛그룹인 ‘소녀시대 - 태더서’가 네티즌의 평가를 분석, 활용해 탄생했다는 것이다. 소셜 분석업체인 버즈인사이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소녀시대’ 검색 키워드로 멤버들의 이미지·재능·퍼포먼스·스타일 등을 분석했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연, 티파니, 서현 등 3명의 멤버로 유닛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태더서’는 크게 성공했다. 또 규모의 경제학을 통해 일정한 제작비 수준에서 마케팅비를 점차 높일 때 수익성이 증가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일정한 마케팅비에서 제작비를 높일 때 수익성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에 숫자나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편견을 조금 더 북돋아준다. 311쪽, 1만 5000원, 이크로스. /이성주 기자



전은령씨가 제43회 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은령,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 심청가 중 ‘주과포해 대목’ 완벽하게 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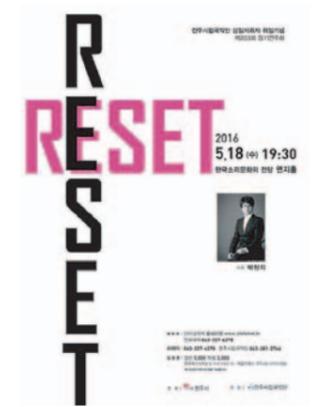
전은령(47, 서울특별시)씨가 제43회 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판소리 명창에 올랐다. 15일 남원시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 판소리 명창부 본선에서 전씨는 판소리 심청가 중 ‘주과포해 대목’을 불러 만점에 가까운 평균 99점을 받았다. 전씨는 명창대회 3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궁가의 대가인 남해성 선생으로부터 사사했다. 학력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으며, 동대학원에서 판소리수궁가를 이수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KBS국악대전 은상, 서천국악대회 국회장상 등을 받았다. 전씨는 현재 서울 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전씨는 결혼하면서 소리공부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시작해 뒤통에 영광을 안았다. 4명의 예비 명창이 기량을 겨룬 이날 본선대회는 어느 해 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3명이 각각 97(2명)과 97.4점을 받았다. 서울이 고향인 전 명창은 중학교 3학년 때 노래소리를 듣고 주위에서 “소리에 소질이 있다”고 권유에 소리에 입문했다. 전 명창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처럼 눈물을 흘렸다. 특히, 묵묵히 소리공부를 응원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 명창은 남편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주시립국악단, 18일 정기연주회 ‘RESET’

전주시립국악단의 제20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열린다. 박천지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의 취임기념을 겸해 마련된 이날 RESET 연주회에는 국악관현악과 타 예술장르(무용·창 등)가 결합된 이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첫 무대는 행진음악 <관현악 대취타, 역>으로 역동적인 울림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용을 위한 관현악, 여명의 빛> 음악은 수제천을 모티브로 국악관현악으로 재구성해 웅장하면서 단정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우아한 춤사위가 어우러진다.



전주시립국악단 RESET 연주회 포스터.

<창과 관현악, 춘향가 중 여사상봉대목>은 여사가 된 이몽룡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지 차림을 하고 춘향의 집에 찾아가 월매를 만나는 장면을 창과 관현악으로 표현한다. <관현악, 남도아리랑>은 아리랑 가락의 주선율에 활기찬 타악기의 리듬연주가 더해져 이색적인 민요를 즐길 수 있다. 연주회는 경기도당굿 장단인 터벌림, 율림채, 천동채, 동살풀이 등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협주곡, 사기>로 갈무리 된다. 지난 4월 임명된 박천지 지휘자는 박 후보지는 서울예술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타악과 작곡, 지휘를 전공했으며 중요무형

문화재 제92호 태평무(악사) 이수자다. 그는 전통 타악기 연주자로 시작해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연극과 무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으로 얻어진 음악적 성과들을 전통음악에 담아 표현해 오고 있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이며, 공연문의는 063-281-2766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전주향교 성년례 재현 행사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전주향교는 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16일 오전 10시 전주향교 문화관에서 성년례 재현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무를 일깨워 주고 아울러 한국전통 성년식이라 할 수 있는 ‘성년례’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열린다. 성년례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 세자 유에게 어른 평상복인 배자를 입힌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전통적인 성년례에 해당하는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이다.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관례, 여자에게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성년례는 관례와 계례를 합쳐 ‘관계례’라고도 불린다. 보통의 성년례 의식 절차는 본발을 만찬 어른을 빈으로 모시고 절을 올리는 상견례, 어른 예복(평상복, 외출복, 관복)으로 같이입는 삼가례, 어른들이 먹는 술을 내려 성인으로서 대접해 주는 초례와 성년선언 순으로 이어진다. /정해은 기자

## 고창서 ‘동백서화예술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제13회 한국 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제13회 한국 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입상작과 초대작가의 작품 등 총 240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동백서화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고창군, 고창군의회가 후원한 ‘제13회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전시회는 14일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과 군의원, 기관 단체장과 국내 서화인,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입상자 시상과 공모패 수여, 축하,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한재영 회장은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국단위의 공모대전 개최를 통해 서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16일>

<p><b>▷쥐띠</b> 46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60년생: 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라. 72년생: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병에 신경써라. 84년생: 집안 금전운이 풀리거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난관이 발생하니 주의하라.</p>	<p><b>▷소띠</b> 49년생: 고집은 금물. 61년생: 뒷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라. 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해결하려면 할수록 일이 틀어지니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운.</p>	<p><b>▷호랑이띠</b>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62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 7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진다.</p>	<p><b>▷토끼띠</b>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p>
<p><b>▷용띠</b>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가 발생하니 주의하라.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88년생: 자신보다 어렵다고 무시하는 인행은 삼가라.</p>	<p><b>▷뱀띠</b>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면 흥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익숙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아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p>	<p><b>▷말띠</b> 54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진다. 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으나 적대감을 갖게 되면 경쟁자로 돌변한다.</p>	<p><b>▷양띠</b>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67년생: 작은 것을 얻었다고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다.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운.</p>
<p><b>▷원숭이띠</b>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주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하라.</p>	<p><b>▷닭띠</b> 57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을 운. 81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 좋은 운. 9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p>	<p><b>▷개띠</b>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있는 운. 58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일을 약간 모자르게 해라. 70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82년생: 건강에 좋지 않은 운이니 성병에 주의가 필요하며 무리는 금물이다.</p>	<p><b>▷돼지띠</b> 4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른다. 59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 71년생: 순간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83년생: 두 번, 세 번 봐도 놓치는 것이 생기는 운이니 매사를 세밀하게 보고 검토하라.</p>